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17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역에 있어서 그 어느 때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과 제한적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뛰어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케냐 선교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케냐나 한국이나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고국방문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행 15:33)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 만나뵈고 인사드리며 선교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1년 6월 안경열, 이해란 (예준, 예성, 예림) 선교사 드림

+ BOYS BE AMBITIONS!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

긴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를 향해 가는 케냐의 다음세대들! 방학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또다시 학교에 못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교육부는 예정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개학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의 보건상황은 열악하여 코로나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룽게르데드교회에도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친구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청소년 캠프를 계획하여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무박 2일로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맛있는 식사와 재미있는 게임으로 몸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집을 떠나 공부하는 친구들을 학교 기숙사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다. 수십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걷어가는 동안 사자나 코끼리 같은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 학교 가는 길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차를 준비시켜 주셨다. 차타는 것이 익숙치 않아 멀미도 했지만

차를 타고 함께 동행하니 위험하고 외로웠던 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

학교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고 친구들을 두고 돌아오려니 마음이 왠지 모르게 짠해져 한명씩 안아주면서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이 어느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기를 기도한다.

+ 주님의 스케치북 +

함께 동역하는 라위 목사님은 한달에 천오백 실링(한국돈 15,000원)의 월세를 내는 좁은 공간에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그냥 보기에다 허름해 보이고 좁은 공간에서 세 식구가 살기에 힘들어 보여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호와 이레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의 손길을 통해 사택을 지어 드렸다. 편히 쉬 곳도, 조용히 책을 볼 수도 없었던 공간에서 이제는 침과 목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사택의 전과 후]

이렇게 해서 롱게르데드 선교베이스에 또 하나의 건물이 생기게 되었다. 작년엔 교회증축, 올 2월엔 교회 창고와 주방 그리고 사택까지!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이 하나, 둘씩 그려지듯이 선교 베이스에 건물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을 볼때 마다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사역들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벅차오른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 할 "새 예배당 건축",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며 준비할 "꿈 도서관 건축", 지역 목회자 세미나와 젊은이들이 숙식하며 말씀공부를 할 수 있는 "안식관 건축" 등!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선교베이스를 아름답게 스케치해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 한~참을 기다리는 사랑 +

교회 성도중에 발목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마마의 집에 방문했다. 거미에 물려 전날에 병원에 가서 해독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독거미에 물려 걷지도 못하고 며칠을 집안에만 있어야 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님은 불과 몇 주전 아이를 출산한 산모인데, 산후조리하며 몸을 잘 돌보아야 할 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라위목사님과 함께 가정 심방을 하면서 다리를 살펴보니 엄친데 덤친 격으로 거미에 물린 것 뿐만 아니라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큰 병원에 가려고 날짜를 잡았다.

마마를 데리고 아침 일찍 국공립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 접수하고 또 한~참을 기다리고 난 후에야 겨우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발목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는 곳에 가서 또 한~참을 기다려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시 판독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갔다.

이미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기 위해 몇몇 분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선생님이 와서 기다리던 몇 사람을 치료하고 이제야 우리 마마가 차례가 되었는데 그 찰라에 또 어디를 가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의사를 붙잡아 겨우 마마에게 진료를 하게 했다. 마마를 진찰한 의사선생님은 гип스를 해야한다면서 병원에 гип스하는 재료가 없으니 돈을 주면 밖에서 사다가 처치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또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일이 끝날까....?

아침부터 와서 늦은 오후가 되도록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마는 гип스 처치를 잘 받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 하루종일 기다리느라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아차! 하는 생각에 '내가 왜 힘들고 피곤해 할까' 생각해본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 힘들고 피곤할까? 부끄러운 질문에 코끝이 찡해지며 다시 결단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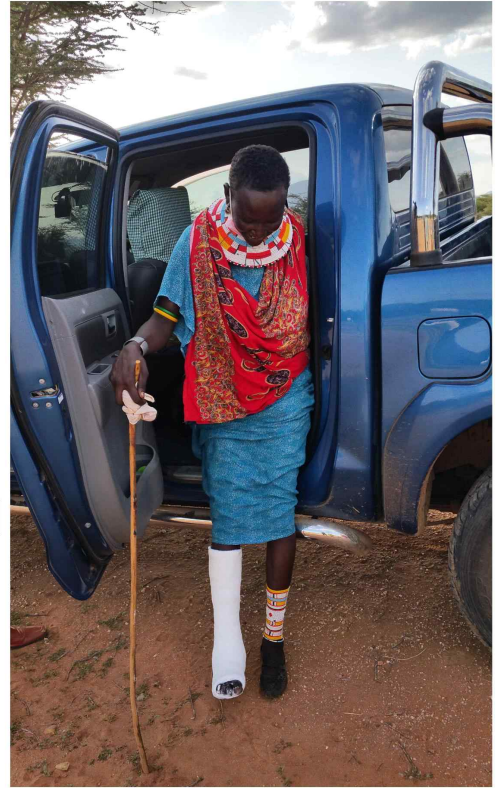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 함께 기도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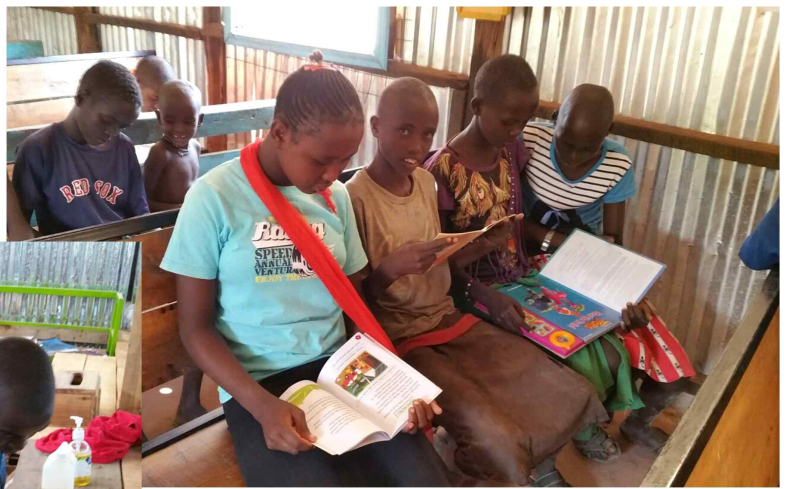
1. 룻게르데드 교회의 모든 성도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 라위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3. 한국에서의 일정(6월 3일-8월 11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하소서.
4. 하반기 교회건축이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써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 장학후원' 그리고 '꿈 도서관의 도서'를 후원해 주실 분과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안경열 선교사 : 카톡ID akrehr73 / akrehr73@hanmail.net



[꿈 도서관 "NDOTO"(은도토)]



[청소년 위생용품 나눔사역]



롱게르데드 지역마을 식량나눔



지역 경찰서 성경책 전달

